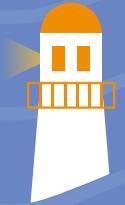




바다가 알려주는
항로 이야기

강원





02

강원

목호항은 원래 소규모 어항이었으나, 1930년대 삼척·태백지역의 탄광개발과 더불어 무연탄 출하 중심 항만으로 개발되었다. 현재는 시멘트, 석회석, 철광석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동해항의 지원 항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울릉도 및 독도를 연결하는 연안 관광항로의 거점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출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 [江原]

- 일반항로
- ⋯ 보조항로

여객선 항로

- 01 목호 - 울릉 - 독도 [목호, 울릉, 독도]
- 02 강릉 - 울릉 - 독도 [강릉, 울릉, 독도]

강릉항

02

목호항

01



강원운항관리센터

강원지역은 동해시에 위치한 강원운항관리센터와 강릉에 위치한 운항관리사무소 운영하고 있다. 강원운항관리센터는 1989년 1월에 업무를 개시하여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파견지 강릉운항관리사무소는 센터직원이 매일 순환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 📅 업무개시일 | 1989. 1. 1. 🏠 규모 | 82㎡ 👤 근무인원 | 3명
- 📞 강원지사 | (033) 535-8091~2 강원운항관리센터 | (033) 534-8437~9
-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일출로 22, 묵호항여객선터미널 2층
- ⚙️ 관리여객선 | 2개 항로 4척 🗺️ 관리지역 | 동해시, 강릉시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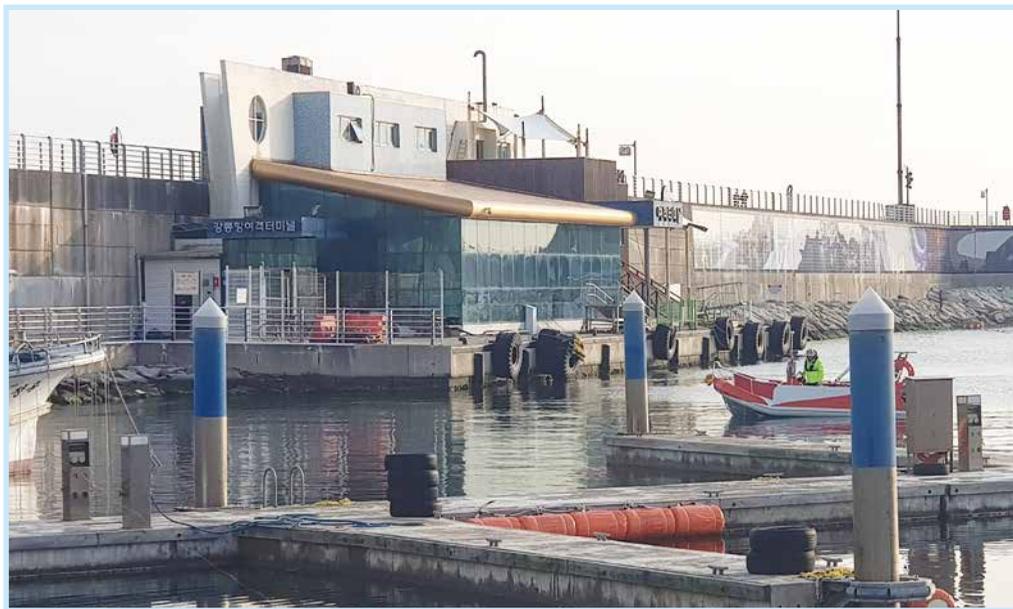




01 강릉 운항관리사무소

📅 개관일 | 2011. 2. 4. 🏗️ 규모 | 9㎡ 👤 근무인원 | 1명(순환근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14번길 51-26 강릉항여객선터미널 1층





01

목호 ~ 울릉 ~ 독도 항로

목호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 국토 동쪽 끝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항로이다.

극동 독도까지 총 운항거리 약 135마일, 운항 시간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는 항로이다. 항해거리가 비교적 길며 해안선을 따라 바람은 물론 물결파의 전달을 방해하거나 막아주는 것이 없는 단조로운 항로로 울릉도로 향해 시 북동풍~동풍 계열, 목호로 향해 시 북서풍~서풍 계열의 바람에 취약하며 최대 파고가 3.1m 이상일 경우 씨스타호, 씨스타3호의 운항이 어렵다. 이용객은 경인지방을 포함한 중부권을 생활권으로 하는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5월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나들이객 및 등산객들로 수송수요가 증가한다. 울릉도는 섬 곳곳에 있는 나리분지, 봉래폭포, 관음도 등의 주요 관광지와 트래킹 코스를 찾는 방문객들이 많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독도를 방문하는 수송수요가 늘어난다. 독도에 입도 할 수 있는 날짜는 약 60여 일 정도로, 입항이 불가능할 시에는 선회관광을 실시한다.



1. 운항 여객선

🔍 씨스타1호

씨스타1호는 묵호항에서 울릉도 사동항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12월 ~ 익년 2월까지 동절기 비운항)으로 08:10부터 16:40까지 1일 왕복 1회 운항(독도까지 운항 시 1일 편도 1회 추가하여 20:30까지 운항)하고 있다. 주요 이용객은 단체 및 가족 단위 관광객, 등산객, 낚시객 및 해양레포츠(스쿠버 다이빙 등) 이용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울릉도를 생활권으로 하는 도주민은 포항-울릉 항로를 주로 이용한다. 편의시설로는 여객실에 매점이 있다.

기항지
소요시간

묵호-울릉(2시간40분)/울릉-독도(1시간45분)



총 톤수	388톤	운항횟수(왕복)	1회	기관출력(kw)	1,440 x 4
여객정원	442명	항해속력(노트)	40	진수년월	'09. 05.
승무정원	4명	운항거리	85마일 49마일	소요시간	2시간40분 1시간45분
선종	초쾌속선	여객선사	정도산업(주)		



☑️ 선사 홈페이지



☑️ 여객선 안전정보



☑️ 여객선 운항정보



🔍 씨스타3호

씨스타3호는 묵호항에서 울릉도 도동항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12월 ~ 익년 2월까지 동절기 비운항)으로 08:50부터 15:50까지 1일 왕복 1회 운항(독도까지 운항 시 1일 편도 1회 추가하여 20:40까지 운항)하고 있다. 주요 이용객 및 편의시설은 씨스타1호와 동일하다.

알림

씨스타1호와 씨스타3호는 묵호항, 울릉(사동/도동)항 및 독도를 교차로 운항하며 각 항의 출항 시간은 독도 운항여부에 따라 요일별로 상이하여 여행객은 사전에 해당 선사에 운항 시간 문의 필요

기항지
소요시간

묵호-울릉(2시간50분)/울릉-독도(1시간45분)



총 톤수	550톤	운항횟수(왕복)	1회	기관출력(kw)	2,320X4
여객정원	587명	항해속력(노트)	35	진수년월	'98.04.
승무정원	4명	운항거리	87마일 48마일	소요시간	2시간50분 1시간45분
선종	초쾌속선	여객선사	정도산업(주)		



☑️ 선사 홈페이지



☑️ 여객선 안전정보



☑️ 여객선 운항정보



2. 접안시설 현황 및 특징

🔍 목호

동해·목호항 재창조 사업(1단계)에 따라 2018년 3월에 여객선터미널을 중앙부두로 이전하였다. 여객선 부두 안쪽으로 어선부두에 소형어선들이 정박해 있어 여객선 입항 시 발생하는 항주파에 주의해야 한다. 항주파 피해 방지를 위하여 여객선 부두와 어선부두 사이에 직각으로 80m 규모의 파제제가 설치되어 있다.

※ 항주파 : 선박이 항해하면서 생기는 파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배치도



1 목호항 여객선터미널

편의시설(대합실 등) 현황

시설구분	여객터미널
수용인원(명)	1,000
매표소 유/무	유
개관일	2018. 3. 13.



2 목호 선착장

접안시설 현황

시설구분	안벽
규모(m)	130 × 20 × 1.8
접안시 선수방위	30°
거주인구(명)	(동해시) 90,626



- ☑ 어선의 입·출항이 오전시간대(05시~11시) 빈번하게 일어나 항내 및 항계부근에서의 충돌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 울릉도 사동항

방파제와 접안부두가 매우 근접해 있어 협소한 항내수역에서 방파제 통과 직후에 접안자세를 취해야 한다. 20kts 이상의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을 경우 압류가 심하고 방파제 통과 직후 대각도로 변침해야 하므로 증속할 수 없어 선박조종이 아주 불리하다. 이안 시 전방 및 후방의 여유수역이 부족하여 수평이동(정횡이동) 후 출항한다. 정박 중 동풍 계열의 바람 및 파도 유입 시 부진동현상이 발생하여 여객 승·하선 시 주의를 요한다.

•배치도





1 울릉도 사동항 여객선터미널

편의시설(대합실 등) 현황

시설구분	여객터미널
수용인원(명)	600
매표소 유/무	유
개관일	2012. 5. 1.



2 울릉도 사동항 선착장

접안시설 현황

시설구분	안벽
규모(m)	270 × 20 × 3.0
접안시 선수방위	294°
거주인구(명)	9,200



☑ 포항-울릉 정기화물선 두 척이 사동항에 기항하고 있어 화물선 입·출항 시 통항선에 의한 상호 간섭작용이 발생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울릉도 도동항

울릉도 남동쪽에 자리한 도동항은 항의 입구가 남동쪽으로 열려 있으며, 입구 부분에 파제제(TTP)가 설치되어 있다. 입항 시 강한 바람에 의한 선체 압류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속도(6~8kts 가량)를 유지하면서 부두에 근접해야 한다. 출항 시 항내 선회장이 협소하여 이안 후 선박속력을 점진적 후진으로 증속하여 출항하여야 한다. 안벽 길이 및 여유 공간이 협소하여 2,000톤 이상의 카페리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이 불가능하며, 포항 및 묵호항 여객선이 동시간대 승·하선이 이루어지므로 여객과 차량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

•배치도



1 울릉도 도동항 터미널

편의시설(대합실 등) 현황

시설구분	여객터미널
수용인원(명)	300
매표소 유/무	유
개관일	2013.11.17



2 울릉도 도동항 선착장

접안시설 현황

시설구분	안벽
규모(m)	128 × 10 × 2.5
접안시 선수방위	321°
거주인구(명)	9,200



- ☑ 야간 입항 시 도동항 입구 좌우에 설치된 산책로 조명으로 인해 항로 입구 좌·우 등대 식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독도

선착장은 동도에 위치하며 길이 80m, 폭 12m의 안벽 기항장이다. 접안지가 외해에 노출되어 있어 남서풍 및 서풍의 바람과 너울 유입 시 접안이 어렵다. 동도와 서도가 17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병풍효과에 의한 국지적 돌풍현상이 발생하며, 입항 시 부두와 5~10m 이상 거리를 두고 접근하여 수평이동으로 접안하여야 한다.

•배치도



1 독도 선착장

접안시설 현황

시설구분	안벽
규모(m)	80 × 12 × 3.0
접안시 선수방위	31°
거주인구(명)	25

3. 항로구간의 수로 정보

🔍 조류 및 조석

• 조류

동해는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작은 해역에 의해 외해와 통하고 있으며 서해나 남해에 비하여 조석이 매우 작다. 조석차는 20cm 내외이며, 조류 역시 미약하여 유속이 20~30cm/sec에 불과하다. 쿠로시오 해류 지류인 대마난류가 울릉도 부근 해역에서 해류전선을 형성하고 있어 울릉도 부근 해상에는 다양한 크기의 와류가 존재한다.

(단위:kts)

항로구간	최강창조류		최강낙조류	
	유형	유속	유형	유속
목호항	남류	0.2~0.3	북류	0.2~0.3



• 조석

(단위:m)

구 간	현 황		표준항과의 조시차	
	고조	저조	표준항	조시차
목호	0.28	0.10	목호	00:00
울릉도 사동항	0.23	0.09	울릉도	+00:09
울릉도 도동항	〈 데이터 없음〉			
독도	0.22	0.10	독도	00:00



🔍 기상 특이사항

• 너울

동해는 1,000~2,000m의 매우 깊은 수심층으로 형성된 해저지형과 일본열도에 둘러싸인 호수 형태로 섬 등의 장애물이 적어 내부 운동에너지의 자정능력이 미약하여 너울의 전파에 유리하다. 따라서 동해 및 북해도 부근에 태풍 및 저기압이 정체할 때 북동풍 유입으로 너울 발생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 바람(항해에 지장을 주는 풍향)

목호-울릉 항로는 북동풍, 동풍이 불 때 항해에 지장이 있다. 울릉-독도 구간은 동풍 및 남동풍이 불 때, 울릉도 서쪽항로는 서풍 및 북서풍이 강하게 불 때 항해에 지장이 있다. 울릉도에 주로 발생하는 바람은 지리적 지형적 특성에 의하여 북동풍과 남서풍이 계열이며, 24시간 평균풍속은 3.7m/sec이고 순간최대풍속은 51m/sec까지 측정된다. 4계절 모두 비교적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여름을 제외하고 월 15일 내지 22일 동안 강풍이 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람이 강하고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다.

• 평균 풍속 시 파고높이

구 분	NW	NE	SW	SE
5m/s	1.1~1.2m	1.2~1.4m	0.9~1.2m	1.0~1.2m
10m/s	2.0~2.5m	2.0~2.5m	1.8~2.3m	1.8~2.3m
15m/s	3.2~3.8m	3.3~4.0m	2.8~3.8m	3.0~3.8m



4. 항로 준수사항 및 위험요소

항로상 위험요소



• 해무 다발지역

항로 구역상 목호, 울릉, 독도 반경 10마일 지역이 해무 다발지역이다. 4~10월 항로 전반에 국지적인 해무가 발생하며 장마기간인 6~7월에는 농무현상이 발생한다. 해무는 보통 수 시간 내 소산되어 운항이 통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어선조업 다발지역

항로상 묵호근해, 울릉근해, 독도근해가 조업어선 다발지역으로 조업(문어, 게, 콩치) 어선이 다수 존재한다. 성어기에 묵호항 부근에서 조업하는 문어 주낙어선 및 울릉도·독도부근에서 조업하는 콩치어선 등의 어망에 의한 추진기 이물질 유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니 운항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선박교통량

묵호항 부근은 어선, 화물선 및 해경함정 등 입·출항 선박과 교차상태가 자주 발생한다. 울릉도 사동항 부근은 포항-울릉을 운항하는 화물선 및 해군함정 등 입·출항 선박과 교차상태가 자주 발생한다.

① 묵호항 부근



② 울릉도 사동항 부근



- 여객선 항로 — 화물선 항로
- 어선 항로 — 해경함정 항로

5. 수송실적 현황

연도별 수송실적(2013~2020년)

여객 수송(독도 수송인원 포함) 실적은 2014년도 이후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15년도 약 19만 명에서 2019년도 약 21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쾌속카페리의 장기 비운항으로 여객수송이 약 14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객수송 실적이 약 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49%로 대폭 감소하였다.



목호 - 울릉(사동, 도동) 차량수송 현황

(단위 :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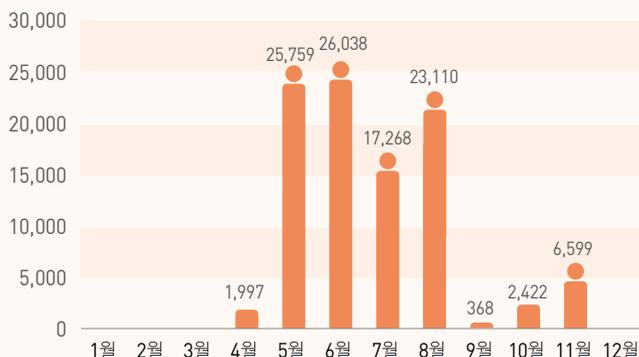
* 2018년부터 쾌속카페리 비운항으로 차량 수송실적 없음

🔍 2020년 수송실적

연간 103,561명(일반인 101,777명, 도서민 1,784명)을 수송하였으며, 이용객 중 일반 관광객이 98.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관광항로이다. 계절별로는 봄철(4월~5월) 나들이객 및 등산객,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아 독도를 방문하는 단체, 여름 휴가철(7월~8월) 가족단위 여행객 및 가을철(9월~11월) 단풍산행 여행객이 연중 꾸준히 이용한다. 겨울철(12월~익년2월)은 잦은 기상악화로 휴항한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여객수송 실적이 전년대비 약 49%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KTX 노선추가(목호역, 동해역)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으로 해양레저(스쿠버다이빙, 낚시 등) 활동 등을 위한 수도권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호-울릉-독도 월별 여객수송 현황

(단위 : 명)





02

강릉 ~ 울릉 ~ 독도 항로

강릉에서 출항하여 대한민국 국토 동쪽 끝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항로이다.

극동 독도까지 총 운항거리 약 148마일, 운항 시간 약 4시간 45분이 소요되는 항로이다. 항해거리가 비교적 길며, 바람은 물론 물결파의 전달을 방해하거나 막아주는 것이 없는 단조로운 항로로 울릉도로 향해 시 북동풍~동풍 계열, 강릉으로 향해 시 북서풍~서풍 계열의 바람에 취약하며 최대파고가 3.1m 이상일 경우 씨스타5호, 씨스타11호의 운항이 어렵다. 이용객은 경인지방을 포함한 중부권을 생활권으로 하는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5월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니들이객 및 등산객들로 수송수요가 증가한다. 울릉도는 섬 곳곳에 있는 나리분지, 봉래폭포, 관음도 등의 주요 관광지와 트래킹 코스를 찾는 방문객들이 많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독도를 방문하는 수송수요가 늘어난다. 독도에 입도 할 수 있는 날씨는 약 60여 일 정도로, 입항이 불가능할 시에는 선회관광을 실시한다.



1. 운항 여객선

🔍 씨스타5호

씨스타5호는 강릉항에서 울릉도 저동항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12월 ~ 익년 2월까지 동절기 비운항)으로 08:20부터 17:50까지 1일 왕복 1회 운항(독도까지 운항 시 1일 편도 1회 추가하여 20:20까지 운항)하고 있다. 주요 이용객은 단체 및 가족 단위 관광객, 등산객, 낚시객 및 해양레포츠(스쿠버 다이빙 등) 이용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편의시설로는 여객실에 매점이 있다.

기항지
소요시간

강릉-울릉(3시간00분)/울릉-독도(1시간45분)





총 톤수	388톤	운항횟수(왕복)	1회	기관출력(kw)	1,440 x 4
여객정원	438명	항해속력(노트)	35	진수년월	'09. 06.
승무정원	4명	운항거리	100마일 48마일	소요시간	3시간00분 1시간45분
선종	초쾌속선	여객선사	씨스포빌(주)		



☑️ 선사 홈페이지



☑️ 여객선 안전정보



☑️ 여객선 운항정보



🔍 씨스타11호

씨스타11호는 강릉항에서 울릉도 저동항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12월 ~ 익년 2월까지 동절기 비운항)으로 09:20부터 17:50까지 1일 왕복 운항(독도까지 운항 시 1일 편도 1회 추가하여 20:20까지 운항)하고 있다. 주요 이용객 및 편의시설은 씨스타5호와 동일하다.

알림

씨스타5호와 씨스타11호는 강릉항, 울릉도 저동항 및 독도를 교차로 운항하며 각 항의 출항 시간은 독도 운항여부에 따라 요일별로 상이하여 여행객은 사전에 해당 선사에 운항 시간 문의 필요.

기항지
소요시간

강릉-울릉(3시간00분)/울릉-독도(1시간45분)



총 톤수	420톤	운항횟수(왕복)	1회	기관출력(kw)	1,440X4
여객정원	449명	항해속력(노트)	35	진수년월	'17. 06.
승무정원	4명	운항거리	100마일 48마일	소요시간	3시간00분 1시간45분
선종	초쾌속선	여객선사	씨스포빌(주)		



☑️ 선사 홈페이지



☑️ 여객선 안전정보



☑️ 여객선 운항정보



2. 접안시설 현황 및 특징

🔍 강릉항

강릉시 견소동에 위치한 국가어항(구 안목항)으로 유람선터미널을 강릉시의 시설사용허가를 받아 여객선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다. 여객선터미널의 접안장소가 협소하여 2척 동시접안을 하지 않으며 남방파제 부근 수역에 부선을 설치하여 정박지로 이용하고 있다. 항내 수심이 1~6m로 저질은 모래와 바위로 되어 있고, 바다 모래가 많이 유입된다. 방파제를 등지고 항이 남동쪽으로 열려 있어 남동계열의 바람유입 시 너울의 영향을 받지만, 겨울철 북서풍을 막아주고 있다. 태풍 통과 후 혹은 호우 시 수위가 50cm 정도 상승한다. 북방파제와 남방파제 끝단에 파제제(TPP)가 있어 방파제간 여유수역이 70m이며 입·출항 시 곡선 운행을 해야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배치도



1 강릉항 여객터미널

편의시설(대합실 등) 현황

시설구분	여객터미널
수용인원(명)	200
매표소 유/무	유
개관일	2011. 2. 4.



2 강릉 선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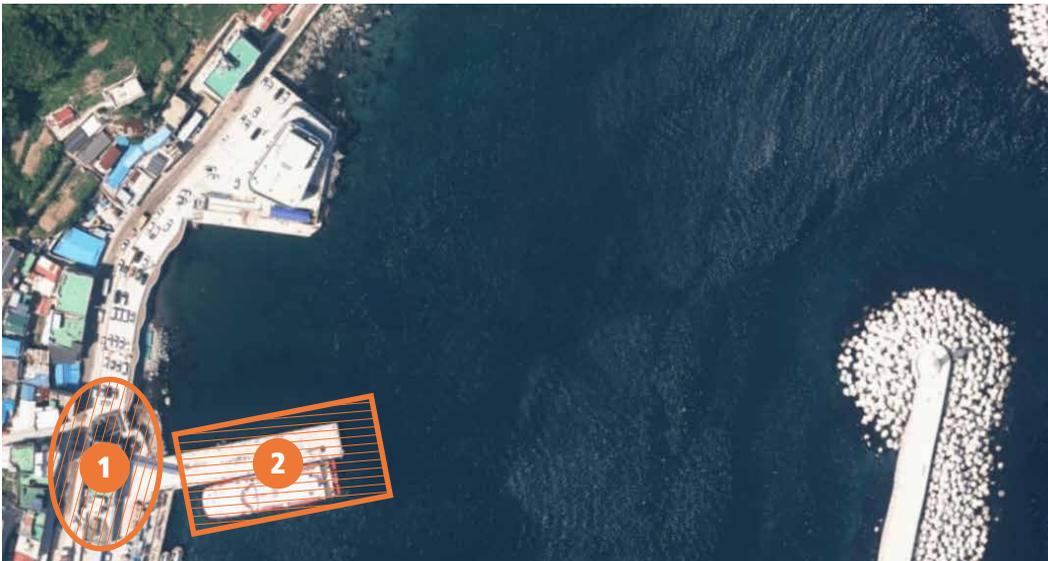
접안시설 현황

시설구분	안벽
규모(m)	39 × 11 × 1.5
접안시 선수방위	269°
거주인구(명)	(강릉시) 231,070

🔍 울릉도 저동항

울릉도 동안에 위치한 국가어항이다. 항내수심은 2~12m이며 저질은 바위, 펄, 모래이다. 항의 입구는 동쪽으로 열려 있으며, 서풍 계열의 바람이 10m/s 이상일 경우 지형의 영향으로 국지풍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접안에 주의를 요한다. 호안 면적이 1,000여 척(10톤 510척, 30톤 150척)의 어선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으며, 기항지 부두 안쪽에 다수의 어선이 접안해 있어 입·출항 시 주의가 필요하다. 돌제부두가 방파제와 거의 일직선에 위치하여 북동 너울 형성 시 너울이 항내로 바로 유입되니 기상 악화 시 비교적 안전한 항내 또는 사동항으로 피항해야 한다.

•배치도





1 울릉도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편의시설(대합실 등) 현황

시설구분	여객터미널
수용인원(명)	300
매표소 유/무	유
개관일	2010. 12. 3.



2 울릉도 저동항 선착장

접안시설 현황

시설구분	안벽
규모(m)	30 × 9 × 3.0
접안시 선수방위	264°
거주인구(명)	9,200



- ☑ 3km 앞 해상에 죽도와 마주하는 촛대암이 있어 입·출항 시 기준이 된다.
- ☑ 안벽 선수 부근에 암초가 있어 부두와 근접하여 입항하며 접촉에 주의해야 한다.



🔍 독도

선착장은 동도에 위치하며 길이 80m, 폭 12m의 안벽 선착장이다. 접안지가 외해에 노출되어 있어 남서풍 및 서풍의 바람과 너울 유입 시 접안이 어렵다. 동도와 서도가 17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병풍효과에 의한 국지적 돌풍현상이 발생하며, 입항 시 부두와 5~10m 이상 거리를 두고 접근하여 수평이동으로 접안하여야 한다.

•배치도



1 독도 선착장

접안시설 현황

시설구분	안벽
규모(m)	80 × 12 × 3.0
접안시 선수방위	31°
거주인구(명)	25

3. 항로구간의 수로 정보

🔍 조류 및 조석

- 조류

동해는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작은 해역이 직접 외해와 통하고 있으며 서해나 남해에 비하여 조석이 매우 작다. 조석차는 20cm 내외이며, 조류역시 미약하여 유속이 20~30cm/sec에 불과하다. 쿠로시오 해류 지류인 대마난류가 울릉도 부근해역에서 해류전선을 형성하고 있어 울릉도 부근해상에는 다양한 크기의 와류가 존재한다.

(단위:kts)

항로구간	최강창조류		최강낙조류	
	유형	유속	유형	유속
강릉항	남류	0.2~0.3	북류	0.2~0.3



• 조석

(단위:m)

구 간	현 황		표준항과의 조시차	
	고조	저조	표준항	조시차
강릉	0.27	0.09	목호	+00:11
울릉도 저동항	0.23	0.09	울릉도	00:00
독도	0.22	0.10	독도	00:00



🔍 기상 특이사항

• 너울

동해는 1,000~2,000m의 매우 깊은 수심층으로 형성된 해서지형과 일본열도에 둘러싸인 호수 형태로 섬 등의 장애물이 적어 내부 운동에너지의 자정능력이 미약하여 너울의 전파에 유리하다. 따라서 동해 및 북해도 부근에 태풍 및 저기압이 정체할 때 북동풍 유입으로 너울 발생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 바람(항해에 지장을 주는 풍향)

강릉-울릉 항로는 북동풍, 동풍이 불 때 항해에 지장이 있다. 울릉-독도 구간은 동풍 및 남동풍이 불 때, 울릉도 서쪽항로는 서풍 및 북서풍이 강하게 불 때 항해에 지장이 있다. 울릉도에 주로 발생하는 바람은 지리적 지형적 특성에 의하여 북동풍과 남서풍 계열이며 24시간 평균풍속은 3.7m/sec 이고 순간최대풍속은 51m/sec까지 측정된다, 여름을 제외하고 월 15일 내지 22일 동안 강풍이 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람이 강하고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다.

• 평균 풍속 시 파고높이

구 분	NW	NE	SW	SE
5m/s	1.1~1.2m	1.2~1.4m	0.9~1.2m	1.0~1.2m
10m/s	2.0~2.5m	2.0~2.5m	1.8~2.3m	1.8~2.3m
15m/s	3.2~3.8m	3.3~4.0m	2.8~3.8m	3.0~3.8m

4. 항로 준수사항 및 위험요소

항로상 위험요소



• 해무 다발지역

항로 구역상 강릉, 울릉, 독도 반경 10마일 지역이 해무 다발지역이다. 4~10월 항로 전반에 국지적인 해무가 발생하며 장마기간인 6~7월에는 농무현상이 발생한다. 해무는 보통 수 시간 내 소산되어 운항이 통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협수로

항로구간 관음도-죽도 사이 0.3마일의 협수로가 존재한다.

• 어선조업 다발지역

항로상 강릉근해, 울릉근해, 독도근해가 어선조업 다발지역이다. 성어기에 강릉항·울릉항을 입·출항하는 어선이 많고 울릉도·독도부근에서 조업하는 공기유지망 어선에 의한 추진기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한 견시가 요구된다.

• 공사용 작업선박

강릉항 인근 안인화력발전소 부두 공사를 위한 작업 선박들이 강릉항 북방파제에 계류하여 여객선 입·출항 항로를 침해하는 등의 안전저해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해상 부유물

7~9월 태풍 및 장마철 시 강릉항 내에 해상 부유물(나뭇가지, 통나무, 쓰레기 등)이 대량유입 된다. 강릉항내 부유물은 수일 동안 표류하여 여객선 입·출항 시 추진기에 유입되어 해양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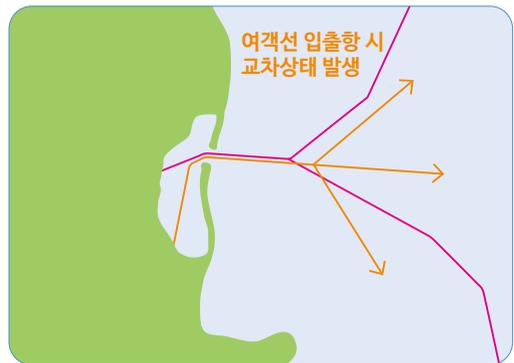
• 선박교통량

강릉항 부근은 어선, 레저보트, 낚시배 및 공사 작업 선박 등 입·출항 선박과 교차상태가 잦다. 울릉도 저동항 부근은 입·출항 하는 어선과 교차상태가 자주 발생한다.

① 강릉항 부근



② 울릉도 저동항 부근



— 여객선 항로 — 레저보트/낚시배 항로
— 어선 항로 — 공사 작업선 항로

5. 수송실적 현황

연도별 수송실적(2013~2020년)

여객 수송(독도 수송인원 포함) 실적은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연간 약 21만 명에서 약 24만 명 수준으로 20만 명대를 꾸준히 수송하고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여객수송 실적이 약 8만 7천여 명으로 전년대비 약 36%로 큰폭으로 감소하였다.

강릉 - 울릉도 저동항 여객수송 현황

(단위 : 명)



울릉도 저동항 - 독도 여객수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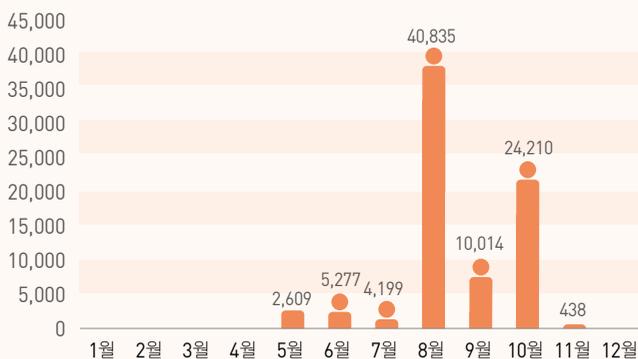
(단위 : 명)



2020년 수송실적

연간 87,582명(일반인 85,930명, 도서민 1,652명)을 수송하였으며, 이용객 중 일반 관광객이 98.1%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관광항로이다. 계절별로는 봄철(4월~5월) 나들이객 및 등산객,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아 독도를 방문하는 단체, 여름 휴가철(7월~8월) 가족단위 여행객 및 가을철(9월~11월) 단풍산행 여행객이 연중 꾸준히 이용한다. 겨울철(12월~익년2월)은 잦은 기상악화로 휴향한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여객수송 실적이 전년대비 약 36%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KTX 노선(서울-강릉) 개통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으로 해양레저(스쿠버다이빙, 낚시 등) 활동 등을 위한 수도권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울릉-독도
월별 여객수송 현황
(단위 : 명)





강원의 멋

환동해권시대를 주도하는
해오름의 고장

동해시

1980년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되어 신설된 시로서 강원도의 영동지방 중남부에 위치한다. 동쪽은 동해에 면하고, 서쪽은 정선군 임계면, 남쪽은 삼척시 교동·도원동·미로면·하장면, 북쪽은 강릉시 옥계면에 접한다. 산지가 해안까지 연결된 암석해안이 많아 곳곳에 해식절벽(해식애)가 발달하였다. 해안선은 전반적으로 단조로우나 묵호 부근의 만입부는 천연의 양항을 이루고, 전천과 마상천의 하구 주변에는 비교적 넓은 사빈이 형성되어 해수욕장으로 이용된다.

*출처: 동해관광문화, 동해시



📍 묵호등대

“시원한 동해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곳”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운항에 기여하기 위해 묵호항 근처에 1963년 6월 8일 건립되었다. 해발고도 67m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를 넓게 조망하기 좋다. 현재에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형물과 인근에 소공원, 벽화마을 등을 조성해두어 관광지의 역할 또한 톡톡히 해내고 있다.

📍 동해시 해맞이길 300



📍 목호항수변공원

목호등대에서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었다면 목호항수변공원에서는 바다를 바로 코앞에서 바라 볼 수 있다. 공원은 방파제 바로 앞에 조성되어 있다. 공원에 조성된 데크에 앉아 눈 앞에서 부서지는 하얀 포말을 보면서 사색에 잠기는 진귀한 경험도 할 수 있다.

📍 동해시 목호진동 13-63



📍 망상해변

망상해변은 국민관광지 제2호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아름다운 해안가를 자랑한다. 깨끗한 백사장과 푸른 물빛은 보는 이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만든다. 또한 바다가 보이게 바로 앞쪽에는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어 낭만적이고 이색적인 밤을 보내고 싶다면 사전에 예약해서 오토캠핑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좋다.

📍 동해시 동해대로 6270-10





강원의 맛

*출처: 동해관광문화



다이버구이

생선구이, 조개구이가 대표메뉴인 구이맛집이다. 모듬생선구이는 고등어, 삼치, 꽁치, 가지미, 임연수, 청어, 뽕락, 참가지미 등의 다양한 생선 중 제철에 맞는 것들이 나온다. 조개구이 또한 키조개, 전복, 홍합, 가리비 등 신선한 조개들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 추천한다.

🏠 동해시 일출로 91 ☎ 033-533-9289



목호항 대게타운

동해 청정지역에서 갓 잡아올린 대게의 신선함을 그대로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대게를 선택하면 그 즉시 찜통에서 쪄낸다. 이렇게 나온 대게는 별다른 양념 없이 내장에 찍어만 먹어도 향긋해 입맛을 돋운다. 남은 내장에 만들어먹는 계딱지 볶음밥도 별미이다.

🏠 동해시 일출로 42 ☎ 033-535-8118



대우칼국수

장칼국수는 국물에 고추장, 된장 등을 풀어 끓인 칼국수로 강원도 지역의 향토음식이다. 이곳의 칼국수에는 감자, 애호박 등의 채소가 들어있고 계란이 풀어져있어 더욱 보드라운 맛을 자랑한다.

🏠 동해시 일출로 10 ☎ 033-531-3417

60년 전통
장칼국수 맛집



📍 일출곰치국

생선 '곰치'를 넣어 끓인 국으로, 이전에는 먹지 않고 버렸던 생선이었지만 요즘은 국물이 시원하고 살이 연해 최고의 해장국 재료로 손꼽힌다. 일출곰치국 또한 상호명과 같이 곰치국을 주메뉴로 판매하고 있으며, 김치를 넣어서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 동해시 일출로 131 ☎ 033-532-7272

